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건축사적 의미와 가치

도윤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차례

- I. 머리말
- II. 적멸보궁 건축연혁
- III. 2중 평면과 지붕가구
- IV. 적멸보궁의 다포구성
- V. 맺음말 -적멸보궁의 건축사적 의미와 가치

I. 머리말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하 ‘적멸보궁’이라 한다)은 이미 1971년에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상당히 일찍부터 그 가치와 의미가 주목되고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진신사리 보장처의 의미가 두드러져 영축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와 함께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하나로 안내되었다. 이후 2018년 7월 4일에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외부 이중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내부 건축물은 구조, 장식 측면에서 조선 전기의 다포식 목조건축 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만한 건축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보물로 승격되었다. 지정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멸보궁은 고려말 조선전기의 건축 양식을 충실히 보여줌과 동시에 내외부 2중 구조라는 독특함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사례로 한국건축사는 물론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적멸보궁의 내외부 2중 건축물은 각기 시대를 달리하여 각각의 건축양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외부 건축물은 익공을 사용한 팔작지붕의 정면3칸, 측면 2칸의 건축물이고, 내부 건축물은 다포를 사용하여 정면 3칸, 측면 2칸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내부 건축물에서 보이는 의장양식과 구조형식으로, 남북한 합쳐서 7동 정도만 남아 있는 조선전기 다포 건축물과 많은 유사점이 있어, 양식검토를 통하여 건축물의 편년과 한국건축사에서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학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멸보궁 건축의 연혁을 정리해 보고, 평면과 다포양식 등 지정 당시 평가된 내용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적멸보궁이 우리나라 건축사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I. 적멸보궁 건축연혁

1. 1468년 중창

적멸보궁의 건축연혁은 사리보장의 연혁과 항상 같이 언급됐다. 『삼국유사』 탑상편의 자장스님의 사리를 국내에 가져왔다는 기사와 고려대 문인 민지(1248-1326)가 기록한 『오대산사적』의 기록을 바탕으로 서기 643년(정관 17,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진신사리가 보장되었다고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리보장에 대한 의미인 것이지, 적멸보궁이라 편액되어 있는 현 건축물에 대한 기록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현재 일반적으로 적멸보궁이라 칭하는 건축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리보장처가 아니라 보장된 사리에 대한 예를 올리기 위한 배례의 장소이다. 이를 통상 배례처 또는 배례각, 배례전, 배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배례의 공간은 이후 사리보장처 자체를 의미하는 적멸보궁으로 통칭하게 되는 모습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된다.¹⁾ 즉, 조선 시대에 작성된 적멸보궁과 관련된 많은 기록은 사리보장처에 대한 기록과 배전에 대한 기록이 혼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적멸보궁 건축에 대한 최초 창건 기록

1) 이강근. (2012). 조선 전반기 제1기 불교건축의 형식과 의미-사리각에서 적멸보궁으로-. 강좌 미술사, (38), 179-204.

은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22년 학술조사에서 건축물 내부 목서 2건이 확인되어 처음으로 조선전기 중창의 이력이 확인되었다. 규명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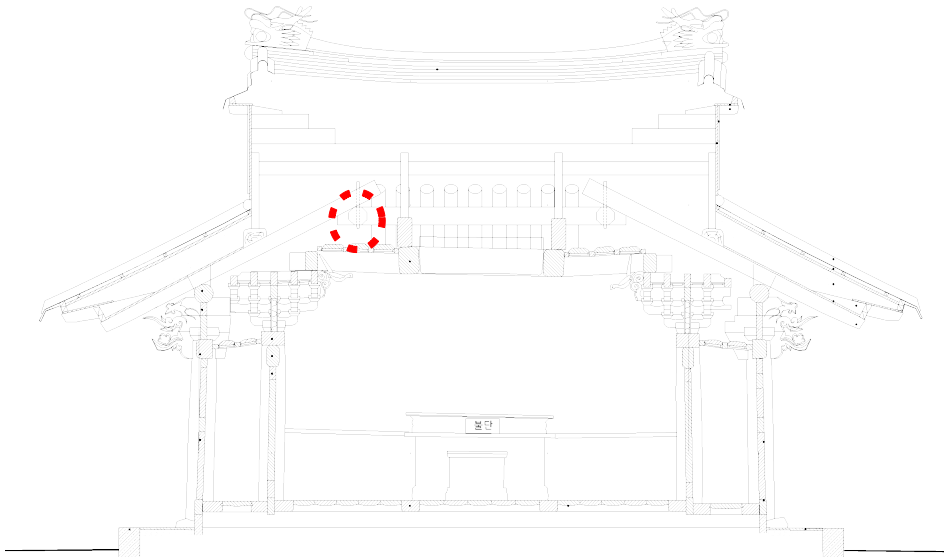


그림 1. 목서 발견 외기도리 위치



그림 2. 후면 중도리 목서 위치



그림 3. 좌측 외기도리 목서 위치

○ 후면 중도리 하면 목서2)

自貞觀十七年 至乾隆三十二年

(이 건물은) 정관 17년(643)에 시원하여 건륭 32년(1767)에 이른다.3)

○ 좌측 외기도리 하면 목서

貞觀十 七始創	五臺山重 創上樑文	城化 ₍₄₎ 六 年	戊子六月 十四日	上樑重創	嘉靖二十 年	辛丑六月初 六日三重創	天啓五年	四重創	順治六年	五創九月	日庚寅年	木手秩	法云	守軒	興樂	仅玄	就心	緣承	澄淨	就尊	雲草	高業龍	供養三平	戒生	木熙 ₍₅₎ (監)	別機 ₍₆₎	別坐	戒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관17(643)년 시창7)한 오대산 (중대의) 중창상량문

- 2) 이 목서는 적멸보궁의 초창시기와 마지막 중창 시기를 적은 것으로, 초창은 정관 17년 즉 서기 643년이라 기록되어 있다. 정관 17년은 신라 선덕여왕 12년으로 간지는 계묘(癸卯)에 해당한다.
- 3) 기록이 작성된 시점을 건륭 32년이라 적고 있다. 이는 서기 1767년으로 조선 영조 43년에 해당하며 간지는 정해(丁亥)년이다.
- 4) 목서의 '城化'는 '成化'의 오기로 보인다.
- 5) '木熙'로 판독되나 소임자를 기록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직책 이름인 '木監'의 오기로 판단된다.
- 6) 명확히 판독되지 않는 추정 글자

성화6년⁸⁾ 무자(1468) 6월 24일 상량중창
 가정20년 신축(1541) 6월 초6일 3중창
 천계5년(1625) 4중창
 순치6년⁹⁾ 5창 9월 일 경인(1650)년
 목수 명단법운, 수헌, 흥락, 근현, 취심, 연승, 징정, 취존, 운초, 고채룡
 공양¹⁰⁾ 삼평, 계생
 목감¹¹⁾ 별기
 별좌¹²⁾ 계근

위 목서에서 특히 주목해서 볼 부분은 1468년에 중창하였다는 기록이다. 조선 세조는 1465년에 오대산 상원사의 중창을 지원하고, 1467년에는 상원사에 머무르고 있는 신미에게 강릉부의 산산제언(蒜山堤堰)을 하사하여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오대산 상원사를 중심으로 중창이 진행된 시기에 현 적멸보궁의 건축물 역시 중창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기록 자체만으로는 1468년 중창이라는 표현이 실제 이전 건축물에 대한 중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자체는 신창이지만 643년 사리보장을 초창으로 인지하고 1468년 불사를 중창으로 표현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존 학술조사에서 시행한 목재연대측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연대측정의 결과를 보면 속집의 기둥은 수종이 전나무로 1317~1347년 사이에 별목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중도리 부재 역시 동일한 수종과 연대로 추정되었다. 한편 목서가 확인된 외기도리의 경우 잣나무로 1470~1650년에 별목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외부기둥의 경우 박달나무로 1746~1913년 사이에 별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재의 수종이 전나무, 잣나무, 박달나무로 연륜연대분석이 불가능하여 탄소연대측정 결과라는 점에서 다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¹³⁾을 감안하여도, 1468년 중창 이전에 이미 배전이 존재

7) 처음 창건하였다는 의미로 '창건(創建)'과 같은 의미이다.

8) 성화6년은 경인(庚寅) 1470년이고 이어 적힌 무자(戊子)년은 성화4년에 해당한다. 연호와 간지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간지를 우선하여 시기를 판단한다.

9) 순치6년은 기축(己丑) 1649년이고, 경인(庚寅)년은 순치7년이다. 앞의 사례와 같이 간지를 우선하여 시기를 판단한다.

10) 식사를 담당하는 소임

11)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를 관리하는 소임, 산의 나무를 관리하는 소임은 산감(山監)이라고 한다. 목감은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만을 관리하는 소임자로 추측된다.

12) 방석, 이부자리 등 생활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소임

13)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도는 95.4%로 제시되었다.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16세기 이후 중창

목서에 의하면 1468년 이후 1541, 1625, 1650, 1767년 중창 또는 중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1767년 중창기록은 「중대적멸보궁중창기」(1878)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적멸보궁의 큰 특징 중 하나인 2중 구조 즉 겹집 구조는 조선시대 중창의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는데 1644년 기행기록에 중벽(重辟)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 이전에 이미 겹집구조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목서 기록과 맞춰 본다면 1541년 또는 1625, 1650년 중창 때 겹집으로 평면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목재의 연대측정 결과 중 목서가 기록된 외기도리의 별목 연대가 1470~1650년으로 추정되었고, 이 외기도리는 겹집으로 변경될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면 목서가 기록된 1650년 무렵이 겹집구조로 변경된 시점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Ⅲ. 2중 평면과 지붕 가구

1. 2중 평면

적멸보궁은 앞서 언급했듯이 내외 2중 평면의 독특한 평면을 하고 있다. 적멸보궁 평면 구성을 단순히 내외진으로 보지 않고 굳이 2중 평면라고 별도로 지칭하는 이유는 단순히 안과 밖이 각기 다른 시대에 건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면을 계획하는 간사이 즉 기둥간격이 서로 다르고 내부기둥열 상부의 지붕가구가 외부기둥열의 가구와 별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건축물의 기둥간격은 전면과 후면은 여칸이 1,850mm, 좌우협칸이 1,880mm로 대략 6자 정도이고, 측면은 1,993~2,027mm로 약 6.5자 정도이다. 반면 외부 건축물은 칸수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내부 건축물과 동일하지만 기둥간격은 전면과 후면은 여칸이 2,463mm, 협칸이 2,497~2,530mm이고 측면은 2,969~3,004mm이다. 내외부 건축물의 기둥 중 동일선상에 위치한 것은 측면의 가운데 기둥뿐이다.

내부 건축물과 외부 건축물의 지붕가구는 별개로 구성되었는데 내부 건축물의

경우 앞뒤로 대들보를 가로질러 단독의 구조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외부 건축물은 창방과 도리로 기둥사이를 엮었을 뿐, 틈보와 같은 별도의 들보 부재는 없어 내부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바소 불안정한 모습이다. 즉, 내외부 건축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조부재가 없는 모습이며, 단지 지붕을 구성하는 서까래와 추녀만 한 부재로 사용하여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내부 건축물에서 대들보 위쪽에는 종보가 들보 윗면에 바로 붙어 놓여 있고 여기에 높이 870mm의 동자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놓았는데 서까래의 끝이 종도리에 못미쳐 들떠 있는 상태이다. 내부 건축물의 공포와 대들보에는 외목도리와 주심도리가 놓이던 흔적만 있고 실제 도리는 종보에 설치되어 서까래를 받치고 있다.

적멸보궁과 같은 2중 평면은 국내에서는 동일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지만, 굳이 유사사례를 들자면 문경 봉암사 극락전을 들 수 있다. 봉암사 극락전은 외견상 정면 측면 3칸의 정방형 평면에 2중의 지붕을 하고 있으나 평면과 가구구성을 보면 내부의 사방1칸짜리 건축물에 마치 차양칸과 같이 1칸 너비의 퇴칸을 사방에 덧달은 독특한 모습의 건축물이다. 이처럼 내부건축물 사방으로 퇴칸을 덧달아 내었다는 점과 내외부의 기둥열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붕의 처리방식과 내외부의 건립시기의 간극 등에서 적멸보궁과 봉암사 극락전은 차이를 보여 같은 유형의 건축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적멸보궁과 같은 2중 평면은 불전건축이 아니라 오히려 민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겹집’이라 부르는 민가의 평면 형식이다. 겹집은 실내의 실들이 위아래 2줄 또는 3줄 드으로 겹쳐져 있는 평면의 살림집을 의미하는데, 지리상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함경도 지역에서부터 태백산맥이 길게 뻗은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지역, 소백산맥의 지리산을 거쳐 전남 내륙 산간지역에서 주로 발달하였다. 중국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 등 조선족이 거주하는 집도 주로 겹집 구조인데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 발달한 평면 형태로 알려져 있다. 국내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겹집의 사례로 강원도 삼척 신리 너와집(국가민속유산)을 들 수 있다. 너와집의 평면은 거의 대부분 밭‘전(田)’자 형식의 겹집으로 되어 있는데, 한 채의 집안에 마루, 안방과 사랑방 등의 여러 방과 정지(부엌), 심지어 마구(외양간)까지 들인 폐쇄적인 평면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후 및 외부적 환경의 대응에 따른 결과로, 각 실을 서로 붙여 건물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내부에서 발생한 온기(잠열)를 최대한 가두어 극심한 추위를 견디기 위한 목적이며, 마구를

내부에 둔 것은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멸보궁의 2중 평면과 강원도 지역의 곁집이 평면 구조상 유사하다는 점은 불전 건축에 나타나는 지역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중대의 환경적 요인 즉 추위라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독특한 평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정면,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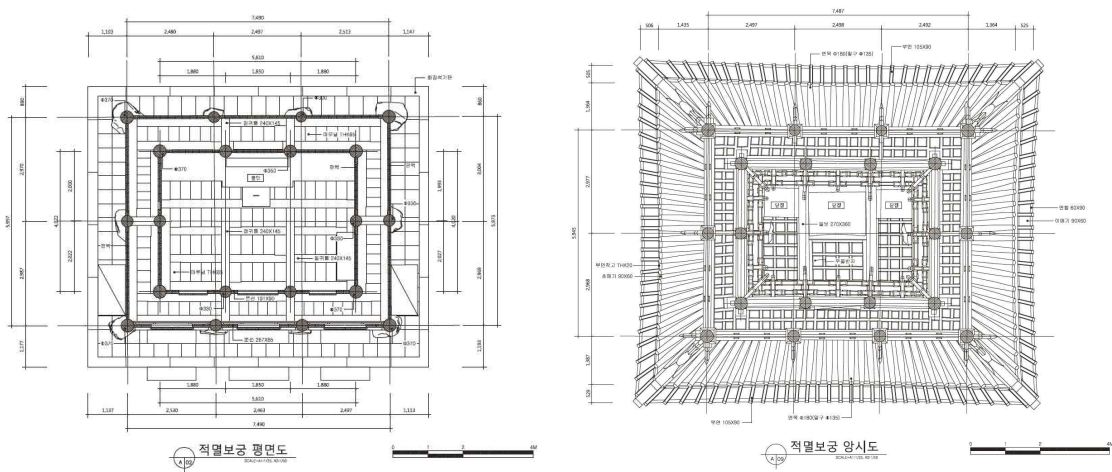


그림 5. 적멸보궁 평면도와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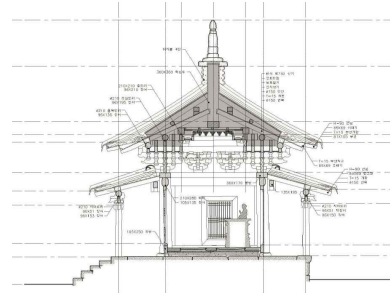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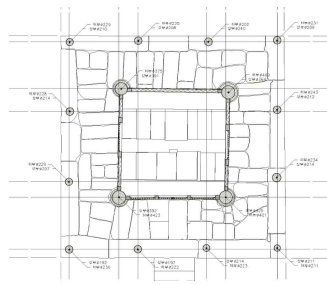


그림 6. 문경 봉암사 극락전 측면 전경, 평면도, 단면도(『봉암사 극락전 실측조사보고서』, 문경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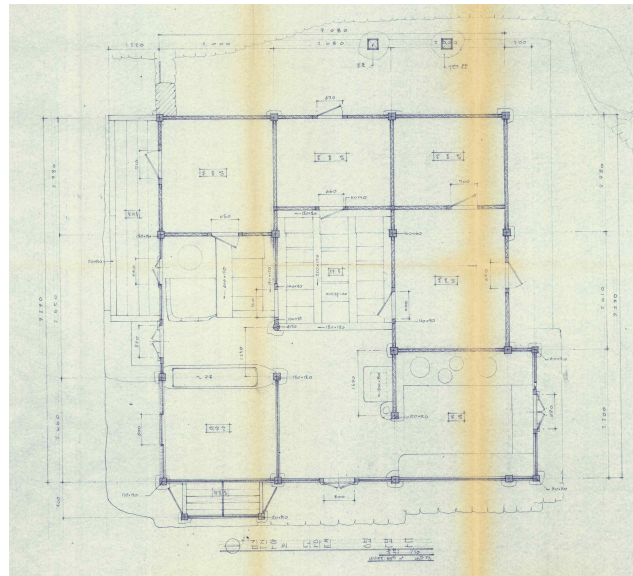


그림 7. 삼척 신리 너와집(김진호가옥 외관, 내부, 평면도)

2. 지붕가구

적멸보궁은 대들보 위에 종보가 바로 놓여 있고 공포와 대들보에 도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대들보 이상은 초창 당시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형된 상태로 보인다. 다만 대들보와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종보는 부재의 치목 상태로 보았을 때 후대의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 자체가 초창 당시의 모습인지 아니면 후대 변형된 모습인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대들보 머리의 도리 결구부를 보면 도리가 놓였을 법한 자리의 치목형태가 원형이 아닌 사각형 단면이고, 다소 거칠게 깎은 모습에서 대들보 역시 초창 이후 개수과정에서 교체되었거나 머리부분에 대한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멸보궁의 전반적인 구조형식에 대한 검토에는 제약이 있어, 여기서는 ‘공포와 대들보의 구성’과 ‘도리의 배치’이라는 2가지 측면만 살펴보았다.

적멸보궁 내부 건축물의 공포는 내외2출목의 다포이며, 주간거리와 상관없이 주간포 1개만 배치되어 있다. 초제공부터 4제공까지 4개의 살미부재를 사용하였고, 8개의 첨차를 안팎으로 대칭되도록 배치하였다. 공포가 측면에도 배치되어 있어 구성되어 있어 건립 당시 지붕의 형태가 팔작지붕 또는 우진각지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들보는 공포 상단에 올려져 있는데, 그 머리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지 않고 외1출목 위치에서 보머리가 끝나고 있으며, 주심의 위치에는 도리 결구부로 추정되는 치목 흔적이 남아 있다. 들보의 아랫면에는 포의 첨차와 뜯장여가 별도의 결구없이 단순히 맞대고 있는 모습이다.

내부 건축물에 도리는 실제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공포의 4제공에 외출목도리 자리가 있으며, 대들보에도 주심도리의 흔적이 남아 있다. 대들보 상면에 바로 붙어서 놓여 있는 종보의 머리에는 중도리가 설치되어 있고 종보 중앙에 높게 세워진 동자대공의 끝에 중도리가 놓여있다. 종보와 중도리, 동자대공, 중도리 등은 원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공포에서 보이는 외출목도리의 흔적과 대들보의 주심도리 흔적은 초창 당시 도리가 설치되었던 위치로 판단된다. 외출목도리의 직경은 약215mm로 추정된다. 외부 건축물의 주심도리 직경은 260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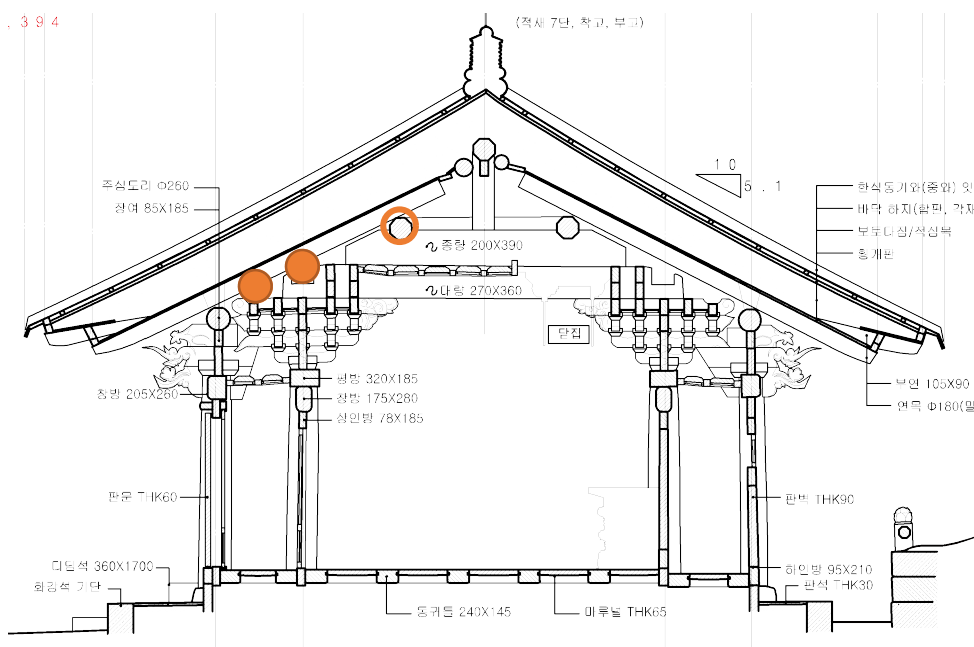


그림 8. 적멸보궁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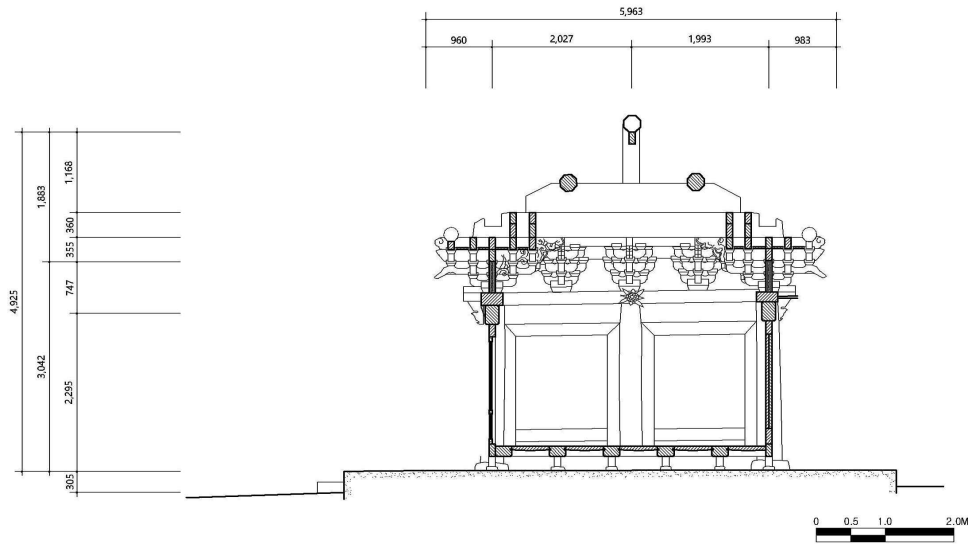


그림 9. 적멸보궁 내부 건축물 부분 횡단면도 (필자 수정)

IV. 적멸보궁의 다포구성

1. 적멸보궁 속집 다포의 의장양식

내외2출목인 내부 건축물 공포의 모습을 살펴보면 초제공부터 4제공까지 4개의 살미가 모두 다른 형태로 가공되어 있다. 가장 아래쪽에서 주두와 결구되는 초제공은 내외부가 모두 교두형(翹頭形)으로 주심의 첨차와 동일한 형태이다. 다만, 초제공의 마구리를 다듬은 방식을 보면 대부분 원호형으로 둥글게 구슬려 깎은 모습이 보이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직절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직절된 부재의 치목수법이 송대 건축규범서인 『영조법식』에서 규정한 고식의 기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형태적으로만 대략적으로 3번 정도 깎은 모습으로 보인다.

2제공 외출목 부분은 앙서(仰舌)로 처리하였고 내출목 부분은 교두형이다. 앙서의 끝은 살미의 하단보다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 있으며, 상면에는 중심선을 정점으로 경사지게 처리하여 두번의 내반된 곡선으로 마무리되었다. 앙서의 하단에는 쌍산(雙山)문양의 초각이 확인된다.

3제공의 외출목 부분은 고식의 보머리와 같이 삼분두 형태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부재의 깎은 부분이 모두 내반된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부재의 폭 역

시 첨차와 동일한 수장폭을 가지고 있어 보머리의 형태를 한 살미부재임을 알 수 있다. 살미의 내출목 부분은 주상포와 주간포가 각기 다른 형태로 처리되어 있다. 들보아래에 위치하는 포의 경우에는 들보하단을 받치는 보아지의 형태로 길게 뻗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공(雲工)형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4제공의 외출목 부분은 보머리를 운공으로 처리하고 그 안에 계눈을 조각하였다. 운공 위에는 외출목도리가 결구되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살미의 내출목 부분은 3제공과 마찬가지로 들보 아래에 위치한 경우에는 보아지 형태로 길게 뻗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공으로 처리되었다. 4제공 측면에는 순각판이 설치되어 있다.

살미와 직교하는 첨차의 경우 모두 초제공과 같은 교두형으로 가공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주 완만한 곡선처럼 보이지만 희미하게 3번 꺾어 깎은 흔적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외부 출목을 구성하는 첨차 중에서 소첨차의 경우 2제공과 결구되는 첨차는 너비가 478mm 이고 3제공과 결구되는 첨차 중 외곽의 첨차가 472mm로 거의 동일한 너비를 보이고 있다. 3제공과 결구된 2번째 외1출목의 첨차 즉 대첨차는 그보다 크기가 조금 큰 670mm로 확인되었다. 주심에 사용된 첨차의 경우 외부 출목에 사용된 첨차와는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제일 하단의 주심 소첨차의 너비는 505mm이며, 2제공에는 주심대첨차의 너비는 742mm로 주심의 소첨차와 대첨차 모두 출목에 사용된 것보다 크게 제작되었다. 모든 첨차에는 공간이 조각되어 있다. 주심첨차의 경우 초제공에 사용된 교두형 살미와 동일한 형태로 소로사이의 넓은 면적에 공간이 표현되어 있으며, 출목에 사용된 첨차의 경우 소로와 소로 사이의 모서리 부분을 호형으로 깎아 공간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살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첨차와 살미의 공간 조각이 직교하면서 마치 소로를 놓은 것처럼 표현되는 모각(模刻)소로¹⁴⁾가 나타나고 있다.

귀포의 구성을 보면 45도 방향으로 한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간포와 주상포의 초제공이 교두형인데 반해 한 대에는 초제공 위치에 운공형의 살미를 배치하였다. 귀포의 좌우대는 출목첨차의 외부로 뻗어나오지 않고 안쪽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14) 모각소로는 주심에서 첨차와 살미가 교차되는 부분에 실제소로를 배치하지 않고 조각으로 소로의 형태만 표현한 것을 말한다. 중국 송대 『영조법식』에는 ‘은출심두(隱出心斗)’라 정의되어 있다. 주심의 네갈소로 표현이 다포건축에 있어 시대판별의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류성룡, 『출목익공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2)

15) 귀포의 경우 현장조사여건이 열악하여 정확한 모습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훗날 수

이상에서 살펴본 공포에 나타난 의장양식 이외에도 적멸보궁에는 시대를 판별할 수 있는 몇가지 중요한 의장양식이 나타나는데 기둥의 경우 배흘림이 표현되어 있으며, 일부 이기는 하지만 기둥 머리를 평평하게 깎아 평방의 폭과 일치시키는 편수깎기 수법이 남아 있다. 기둥머리를 서로 연결하는 창방의 경우 귀기둥에서 전면의 창방과 측면의 창방이 교차되면서 외부로 뻗어나오는 창방 뺨목에서 독특한 의장수법이 보인다. 창방뺨목의 형태를 보면, 사단을 사선으로 처리하고 그 아래를 둥글게 깎아 부등변(不等邊) 연화두식(蓮花頭式)¹⁶⁾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10. 초제공의 마구리 형태(좌: 4번 공포의 원형 마감, 우: 10번 공포의 직철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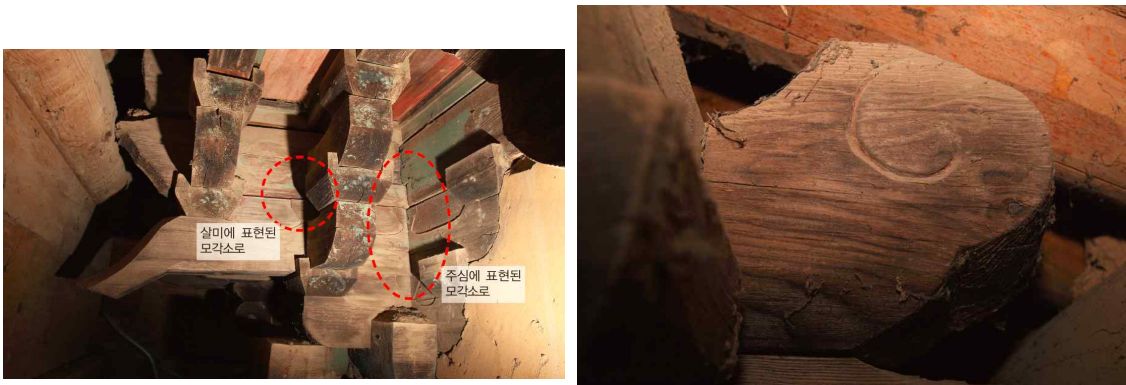


그림 11. 살미와 침차의 공간과 모각소로

그림 12. 3번 공포 4제공 운공

리과정에서 다시 조명되어야 될 부분이다.

16)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흔히 '쌍S자 문양'이라고도 부른다.(이강근, 앞의 글, 2000.)



그림 13. 1번 공포 2제공 양서

그림 14. 17번 공포 3제공의 삼분두형 마감



그림 15. 창방 뿔목

그림 16. 기둥머리 편수깎기

2. 고려말 조선초 다포건축 사례와 비교

적멸보궁 내부 건축물의 가구는 기둥 위에 평방을 놓고 주상포(柱上包)와 주간포(柱間包)를 배치하는 다포(多包)식 건축물이며, 들보머리는 공포의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처리되어 있다. 공포를 구성하는 살미와 첨차 모습에서 고려말부터 조선초 사이(14~15세기)의 건축물에서 보이는 의장수법이 확인되는데, 비교검토대상인 동시대의 다포건축물은 실제 건축물이 남아 있는 사례로 연탄 심원사 보광전 등 북한소재 건축물을 포함하여 7동과 청평사 극락전과 같이 전란으로 소실되어 조사자료만 확인되는 건축물 3동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봉정사 대웅전과 승례문 등 총 4동만이 남한에 남아 있다. 한편 평양의 승인전과 보통문의 경우에는 공포에서 출목첨차의 구성수법이 다른 다포 건축물과 전혀 다른 모습¹⁷⁾이어서, 적멸보궁과 직접적인 비교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7) 내외 2출목의 공포를 구성하고 있지만 내외1출목 위치에 첨차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내외2출목 위치에만 첨차가 구성되어 있다.

18)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문화재> 승인전 항목. 1467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杉山信三, 앞의 책, 329쪽)

19) '목서명' (『韓國古建物上樑記文集』, 고고미술동인회, 1964, 171~186쪽)

표 1. 고려말~조선초(14~15세기) 다포건축 목록

구분	건물명	지역	연대	출목	보머리 위치	비고
1	송인전	평양	1325년 초창 1430년 중수 ¹⁸⁾	내외2출목	외부 돌출	
2	성불사 응진전	황해도 사리원	1327년 중창 1530년 중창 ¹⁹⁾	내외1출목	외부 돌출	
3	심원사 보광전	황해도 연탄	1374년 ²⁰⁾	내외3출목	외부 돌출	
4	석왕사 응진당	강원도 고산	1386년 ²¹⁾	내외2출목	외부 돌출	소실
5	석왕사 호지문	강원도 고산	1392년 ²²⁾	내외2출목	내부	소실
6	승례문	서울	1396년 초창 1448년 중수 ²³⁾	하층: 내외2출목 상층: 내2출목, 외3출목	외부 돌출	국보
7	봉정사 대웅전	경상북도 안동	1435년 중창 ²⁴⁾ (1361년 불단 조성)	내외2출목	내부	국보
8	보통문	평양	1473년 증건 ²⁵⁾	내외2출목	외부 돌출	
9	개심사 대웅전	충청남도 서산	1484년 중수 ²⁶⁾	내3출목 외2출목	내부	보물
10	청평사 극락전	강원도 춘천	1557년 중수 ²⁷⁾	내외2출목	외부 돌출	소실
11	월정사 적멸보궁 내부 건축물	강원도 평창	14세기 말 초창 15세기 중반 중수 추 정	내외2출목	내부	보물

각 건축물간의 비교분석 요소는 시대적 특징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공포를 중심으로²⁸⁾건축물의 구조형식과 의장양식으로 나눠 접근할 수 있다. 구조형식 측면에서는 공포의 구성에 있어 들보의 결구 방식과 도리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

20) 『心源寺事跡碑文』(『朝鮮寺刹史料 下』, 조선총독부, 1911.
 21) 『북한문화재해설집 II』,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97쪽.
 22)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05쪽. 창건시기를 1401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杉山信三,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1984, 83~86쪽)
 23) '중도리 받침장여 목서명' (『서울南大門修理報告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66, 4~5쪽.)
 24) 『法堂重創記』(『봉정사 대웅전 해체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125~133쪽.)
 25)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문화재> 보통문 항목
 (http://portal.nrich.go.kr/kor/pyeongyangView.do?menuIdx=732&idx=204)
 26) '중도리 장여 목서명' (『韓國古建物業上樑記文集』, 고고미술동인회, 1964, 71~72쪽)
 27) 『한국의 고건축 제2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1~4쪽.
 28) 건축물의 시기를 편년하는데 있어 공포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은 다소 협소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본 조사가 육안조사라는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진행되어 공포 등 주요 부재에 나타난 의장적 요소를 검토하는 유일한 접근법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해체 수리시에 부재별 정밀한 감식과 함께 연륜연대 등 과학적 분석이 수반된다면 보다 명확한 편년의 근거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의장양식 측면에서는 살미의 형태와 조각수법, 첨차의 형태와 조각수법, 한대 조각수법, 기둥, 창방뿔목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1) 공포와 들보의 결구 방식

적멸보궁 내부 건축물의 공포 구성에 있어 들보는 외부로 돌출되어 있지 않고 외1출목 위치에서 보머리가 끝나고 있으며, 주심의 위치에는 보 머리에 도리를 결구하던 흔적이 확인된다. 들보의 아랫면에는 포의 첨차와 뜯장여가 별도의 결구없이 단순히 올려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머리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은 사례는 봉정사 대웅전과 개심사 대웅전을 들 수 있다. 개심사 대웅전은 외2출목 내3출목으로 적멸보궁과 차이가 있지만 봉정사의 경우는 적멸보궁과 같은 내외부 2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정사 대웅전은 적멸보궁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면이 나타나는데, 들보의 결구방식에서도 포의 상부에 얹혀져있고 외출목 도리 뒤쪽에 보머리가 자리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 모습이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반면 개심사의 경우 들보의 머리가 외1출목과 주심사이에 위치하지만 포의 뜯장여, 내2출목과 3출목의 첨차가 보와 결구되고 운공이 들보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서 보기에 마치 보머리처럼 보이도록 처리하는 방식이 적멸보궁의 구성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공포와 들보의 결구방식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적멸보궁은 봉정사 대웅전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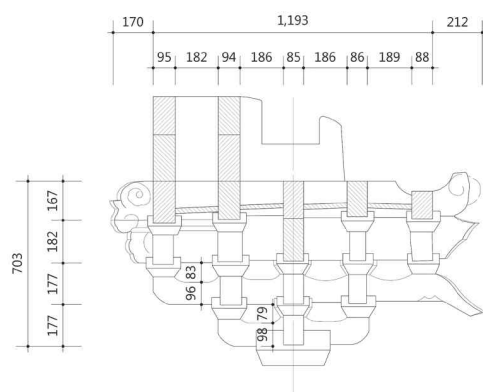


그림 17. 적멸보궁의 대들보 머리와 주상포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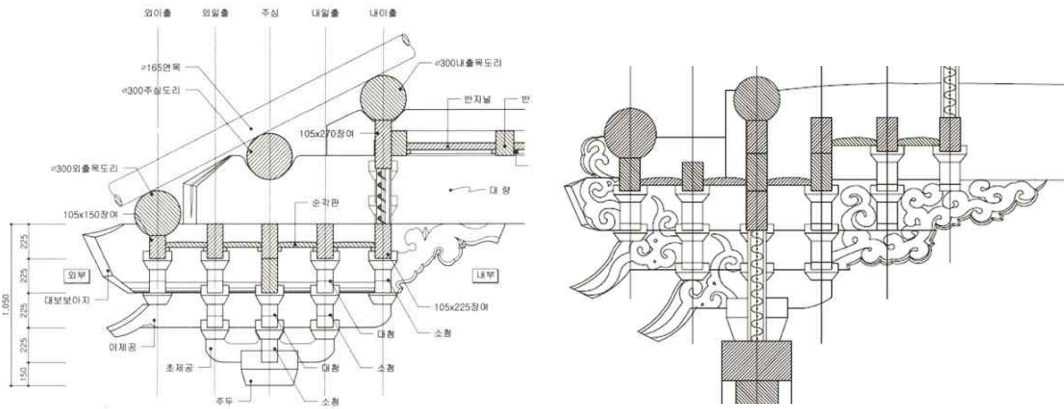


그림 18. 봉정사 대웅전 주상포 상세도(좌)와 개심사 대웅전 주상포 상세도(우)

2) 도리의 구성

적멸보궁의 도리구성을 보면 외출목도리와 주심도리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확인된다. 외출목도리는 공포의 운공에 도리가 결구되던 자리가 확인되었으며, 주심도리의 경우 보머리에 결구 흔적이 남아 있다. 내출목도리의 경우 들보 상부구조의 원형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현 상태로만 본다면 들보에서는 내출목도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들보의 상면에 올려진 종보 머리 부분에 결구된 증도리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다포에서 외출목도리와 주심도리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심원사 보광전²⁹⁾, 봉정사 대웅전³⁰⁾, 석왕사 호지문, 청평사 극락전이 있다. 내출목도리의 경우 도리의 위치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봉정사 극락전이 적멸보궁과 유사하게 들보 상부에 보방향의 부재를 올리고 이 부재의 머리부분에 도리를 설치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29) 심원사 보광전의 경우 기존의 스키야마 도면을 바탕으로 주심도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북한문화재해설집Ⅱ』(1998)에는 주심도리가 표현되어 있다.

30) 봉정사 대웅전의 전·후면 공포에는 주심도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측면 공포에는 주심도리가 설치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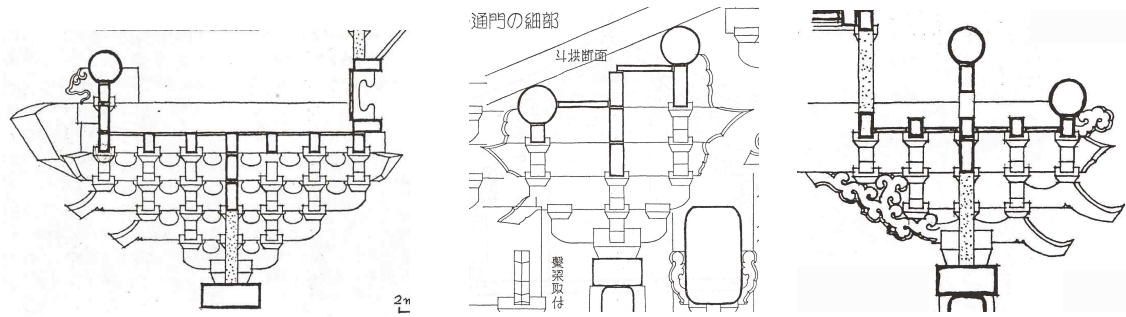


그림 19. 심원사 보광전 주간포(좌), 보통문 상층 주간포(중), 청평사 극락전 주상포(우) 상세도

3) 살미의 형태와 조각수법

적멸보궁의 살미는 주두 위의 초제공에서 외출목도리를 받치고 있는 4제공까지 4개가 사용되는데, 각 살미의 말단부 형태는 초제공부터 교두형, 양서, 3분두형, 운공으로 모두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제일 하단에 교두형 침차와 동일한 형태의 살미가 배치되는 사례는 심원사 보광전을 비롯하여 석왕사 응진당, 봉정사 극락전, 승인문, 보통문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심원사 보광전과 평양 보통문은 ‘교두형+양서+3분두+운공’이라는 조합방식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원사 보광전의 경우 출목이 하나 더 많은 만큼 양서로 처리된 살미가 2제공과 3제공으로 사용되었다는 차이점과 들보의 결구 위치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외출목도리를 3분두 위에 운공 부재를 별도로 사용하여 받치는 모습은 적멸보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문은 상층 공포의 구성이 적멸보궁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적멸보궁 살미의 조각기법에서 보이는 특징을 찾아보면 살미의 측면에 공안(拱眼)이 초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살미에 공안이 초각된 사례는 심원사 보광전과 석왕사 응진당, 승례문, 봉정사 대웅전, 성불사 응진전, 승인전, 청평사 극락전 등이 있는데, 고려말에서 조선초 사이의 다포건축물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인다.³¹⁾ 이 중에서 적멸보궁과 같이 초제공과 2제공의 내부까지 모두 공안이 새겨져 있는 사례는 심원사 보광전이 유일하다. 그 외 다른 건축물의 경우 초제공에만 공안이 있거나 2제공의 외곽에만 초각된 사례이다. 보머리형 살미인 3제공의 경우, 삼분두 표현은 내반된 곡선을 사용하고 전체적인 형태도 상당히 빼족하게 표현되어 법식에 따른 3분두의 제작이라기보다는 양식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1) 개심사 대웅전의 경우 1941년도에 대대적인 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고건축 제2호』(1975)에 의하면 살미의 상단 소로와 소로 사이에 공안이 초각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도면과 사진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삼분두의 보머리 또는 보머리형 살미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고려말에서 조선초 사이의 건축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³²⁾ 이 중에서 모두 내반된 곡선으로 표현된 사례는 보통문과 청평사 극락전이 있다. 성불사 응진전과 승인전의 경우 아래쪽 두면은 내반된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나 상면은 위로 볼록한 즉 외반된 곡선으로 처리하고 있어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주목되는 부분은 양서 하단의 쌍산문양이다. 이 역시 다수의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데 개심사 대웅전과 보통문, 승인전에서만 확인되지 않고 대다수의 고려말에서 조선초 사이의 다포건축물에서 확인되는 양식적 특징이다. 또한 살미에 결구된 첨차는 내외 출목 모두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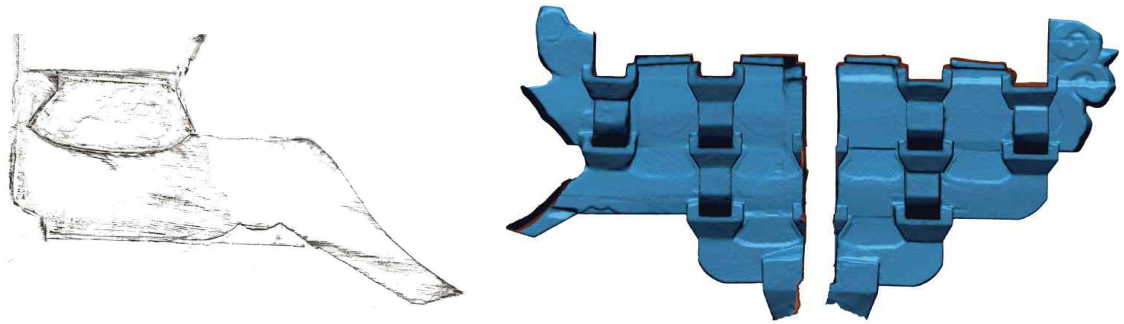


그림 20. 적멸보궁 2제공 양서부분 건탁과 주간포 3D스캔 이미지

4) 첨차의 형태와 조각수법

적멸보궁의 포를 구성하는 모든 첨차에는 공간이 조각되어 있다. 주심첨차의 경우 초제공에 사용된 교두형 살미와 동일한 형태로 소로 사이의 넓은 면적에 공간이 표현되어 있으며, 출목에 사용된 첨차의 경우 소로와 소로 사이의 모서리 부분을 호형으로 깎아 공간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표현은 대부분의 고려말 조선초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조선 중기까지도 일부 나타나는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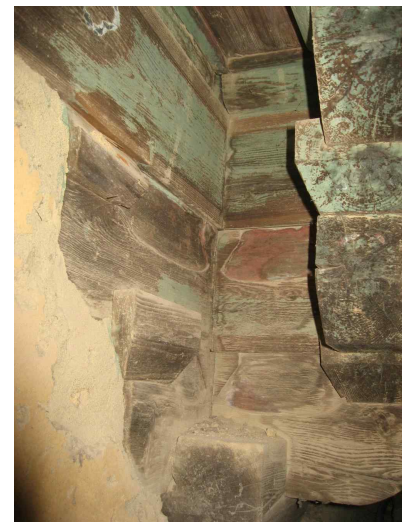


그림 21. 주심에 표현된 공간과 모각소로

한편, 첨차와 살미가 만나는 주심부분에는 모두 모각소로(模刻小櫺)가 표현되어 있다. 주심포 건축

32) 석왕사 호지문의 경우 도면상으로는 삼분두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朝鮮古蹟圖譜 6』(1918)에 수록된 사진 상으로는 삼분을 표현한 보머리가 확인된다.

물의 경우 이곳에 실제 소로가 배치되기도 하지만, 다포건축에서는 생략하거나 살미와 첩차의 공간표현과 함께 모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심소로의 모각은 적멸보궁과 심원사 보광전과 같이 모든 살미와 첩차에 공간이 조각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심 전체에 모각이 표현되어 있다. 즉, 봉정사 대웅전과 같이 초제공에만 공간이 나타나고 제2제공에는 공간이 생략된 경우에는 초제공에만 모각소로가 표현된다.

5) 귀한대 조각수법

주간포와 주상포의 초제공이 교두형인데 반해 한 대에는 초제공 위치에 운공형의 살미를 배치하였다. 비교 검토 대상의 건축물 중 측면에 공포가 구성되어 있는 심원사 보광전, 승례문, 봉정사 대웅전, 청평사 극락전 등에서 귀포의 한대만 다른 형태의 살미를 배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승례문의 경우 귀포에서만 초제공의 양서에 운공형 초각이 덧붙여져 있는 독특한 의장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층 귀포의 경우 좌·우대의 초제공 살미는 운공형으로 다른 공포의 교두형 초제공과는 다른 형태를 하며, 한대는 다시 교두형 살미를 배치하고 있어 적멸보궁과는 정반대의 배치방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한대의 초제공만 다른 의장 기법으로 구성된 사례는 현재로서는 적멸보궁이 유일한 사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22. 1번 공포(전면 향좌측 귀포) 양시(좌)와 한대의 운공형 살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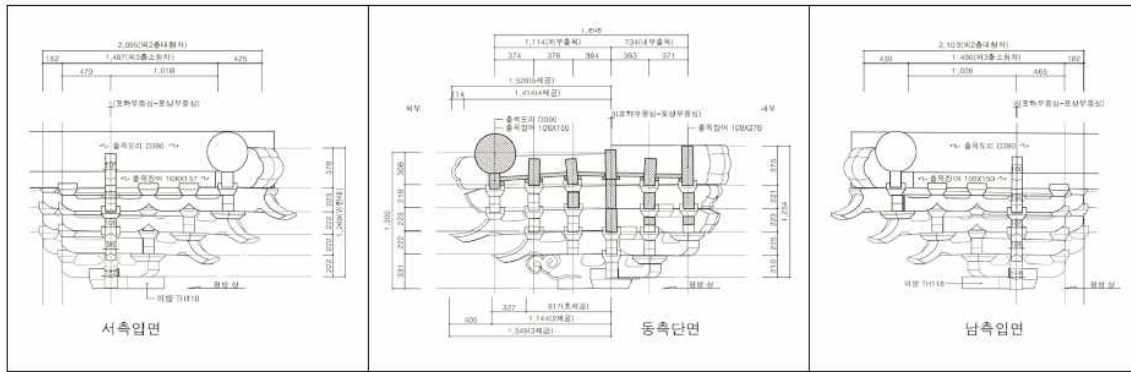


그림 23. 송례문 하층귀포(좌상), 상층 귀포(우상) 화재 이전 현황과 상층 귀포 상세도(하)

6) 기둥과 창방뿔목

앞서 살펴보았듯이 적멸보궁의 기둥에는 배흘림과 편수깎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창방뿔목에는 부등변 연화두가 표현되어 있다. 편수깎기의 경우 그동안 봉정사 대응전이 거의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었다. 창방뿔목의 모습은 석왕사 응진당과 봉정사 대응전에서 유사한 모습이 확인되며, 조선초 주심포 건추물인 무위사 극락전에서 유사한 형태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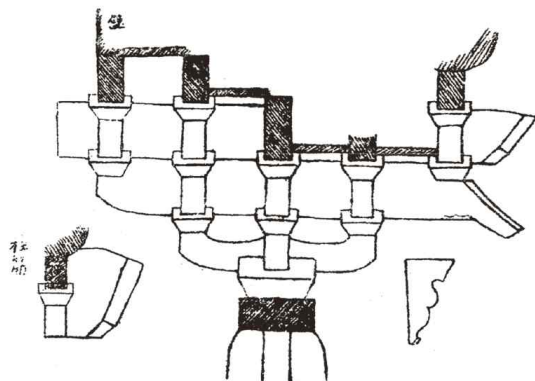


그림 24. 석왕사 응진당 공포 상세도(좌)와 무위사 극락전 창방뿔목 상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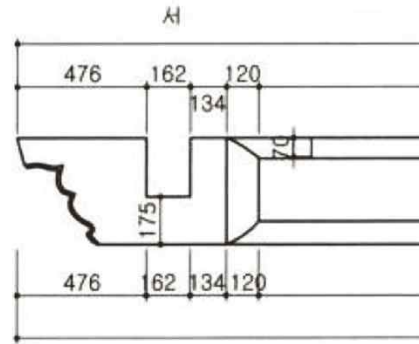


그림 25. 봉정사 대웅전 기둥의 편수깎기와 창방뿔목 상세도

이상에서 의장적 검토의 결과 적멸보궁은 연천 심원사 보광전과 같이 공간이 살미와 첨차의 모든 부분에서 확인되며, 모각소로의 표현, 양서 상면의 2번에 걸친 곡선처리, 기둥머리 부분의 편수깎기의 흔적 등은 14세기말부터 15세기 초반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판단된다. 반면,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 들보의 머리가 공포의 중심부분에 위치하여 외부에 돌출되어 있지 않아 외출목도리를 받지 않고 있는 모습 등은 15세기 중반 이후의 기법과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월정사 적멸보궁 내부건축물은 북한 연천에 소재하고 있는 심원사 보광전이나 안동 봉정사 대웅전, 서울 승례문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V. 맺음말 -적멸보궁의 건축사적 의미와 가치

이상에서 검토한 적멸보궁의 특성은 한국건축사 측면에서 나름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영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식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물로 지정된 적멸보궁은 추가적인 학술조사를 통하여 1468년 중창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었고,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중창과 중수의 기록이 새로이 밝혀졌다. 이 기록은 기존 문헌에 의한 중수기록, 목재의 연대 측정과도 부합되고 있어 적멸보궁의 역사가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고려말 조선초로 추정된 속집의 건축연대가 1468년 중창으로 규명된 만큼, 한국건축사 연구에 있어서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새롭게 규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불전에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겹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겹집구조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함경도와 경북, 전북 등 내륙 산간지역에 분포하는 독특한 살림집의 평면 유형으로 추위라는 기후적 조건에 의해 발생한 특수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평면구조가 살림집이 아닌 불전건축에 나타난 사례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즉 적멸보궁은 불전건축 중 유일하게 겹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증축을 통해 이뤄진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5세기 공포부재와 단청이 변형 없이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적멸보궁은 증축에 의해 겹집이 16~17세기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속집은 겹집의 설치 이후 외기에 노출되지 않고 그대로 현재까지 지속된 건축물이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속집은 15세기 중창 당시의 목부재와 단청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 15세기 목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은 승례문과 봉정사 대웅전 등 소수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후대 중수에 의한 부재의 교체, 단청의 개채등을 고려해 보면 적멸보궁은 봉정사 대웅전과 함께 유일한 15세기 부재와 단청을 유지한 건축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적멸보궁에 대한 평가는 척박한 15세기 건축사 연구에 있어서 적멸보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귀포의 구성, 찌붕 가구 구성법 등 개별적인 요소가 추가적으로 검토된다면 적멸보궁은 그 어느 건축유산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고민할 부분을 발표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하자면, 적멸보궁의 건축사적 가치가 외관상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멸보궁이 가지는 대부분의 특징과 의미는 내부 복도 부분의 반자에 의해 가려져 있어, 이를 해체하기 전에는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궁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모색 역시 현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건축사적 의미와 가치」 토론문

이연노(건축문화연구소)